부처님법, 〈법화경〉에 다 있어



지안 스님의 〈법화경〉 강설

㊼ 법화경의 의미와 가치

그때 석가모니부처님께서 찬탄해 이르셨다.

"훌륭하고 훌륭하다. 보현이여. 그대가 능히 이 〈법화경〉을 수호하여 많은 중생들을 안락하게 하고 이익을 얻게 했으며, 그대가 이미 불가사의한 공덕과 깊고 큰 자비를 성취하였도다. 아득한 예로부터 아뇩다라삼먁삼보리의 마음을 일으켜, 능히 이렇게 뛰어난 원을 세워 이 경을 수호하니 나도 마땅히 신통력을 나타내어 보현보살의 이름을 받아 지니는 자를 지켜 주리라.

보현이여, 만약 이 〈법화경〉을 받아 지녀 읽고 외우며 바르게 기억하여 익히고 베껴 쓰는 중생이 있다면 그 사람은 석가모니불인 나를 만나고 직접 내 입에서 이 경을 들은 것과 다름이 없는 줄 알 것이며, 그 사람은 석가모니불인 나를 공양한 것인 줄 알 것이며, 그 사람은 부처님께서 '훌륭하도다' 고 칭찬받은 줄 알 것이며, 이 사람은 석가모니불인 내가 손으로 그의 머리를 쓰다듬어 준 것이라 알 것이며, 이 사람은 석가모니불인 내가 옷으로 그의 몸을 덮어 준 것인 줄 알아야 하느니라.

이렇게 되는 사람은 다시 세상의 쾌락에 탐착하지 않을 것이며, 외도의 경서나 글을 좋아하지 않을 것이며, 또한 그 사람은 모든 악한 자, 백정이나 돼지와 양, 닭과 개를 키우는 사람이나 또는 사냥꾼이나 여색을 파는 자와 가까이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리라.

그 사람은 마음이 올곧아 바른 생각을 지니며 복덕의 힘을 지니며, 이 사람은 삼독의 괴롭힘을 당하지 않으며, 또한 질투와 아만, 사만, 증상만의 괴롭힘을 당하지 않을 것이며, 그 사람은 욕심이 적어 만족할 줄 알아서 능히 보현행을 닦게 되리라.

보현이여, 여래가 멸도한 뒤 후오백세에, 어떤 사람이 법화의 가르침을 받아 지녀 읽고 외우는 자를 보게 되거든 응당히 이렇게 생각하여야 하느니라. '이 사람이 오래지 않아 도량에 이르러, 모든 마군의 무리를 깨뜨리고 아뇩다라삼먁삼보리를 얻어 법륜을 굴리며, 법의 북을 치며, 법의 소라를 불며, 법의 비를 오게 하여, 천신과 사람의 큰 무리 속에서 사자좌 위에 앉게 되리라' 고 생각하라.

보현이여, 후세에 이 경전을 받아 지녀 읽고 외우는 사람은 다시 의복, 침구, 음식 등 일용품을 탐하는 일이 없으며, 소원이 헛되게 되지 않으며, 또한 현세에서 그 복의 과보를 받으리라. 그러므로 보현이여, 이 경을 받아 지니는 사람을 보면 응당 일어나서 멀리 영접해 부처님을 공경하듯 해야 하느니라."

〈법화경〉의 마무리도 보현보살이 하고 있다. 〈화엄경〉에서 보현행원이 보살도 완성을 상징하듯이 〈법화경〉에서는 〈보현보살〉 '권발품' 이 법화법문의 대미를 장식한다. 법화법문이 설해진 데에는 원래 〈법화삼부경〉이라 하여 설해진 순서가 있다고 말해왔다. 〈무량의경〉을 개경(開經)이라 하여 법화법문을 시작하여 여는 경으로 보았고 〈법화경〉을 본경(本經)으로 설해진 다음 〈보현행법경〉이 결경(結經)으로 설해졌다는 것이다. 이는 천태 지의가 말한 것으로 이때부터 '법화삼부경' 이란 말이 나왔다. 〈법화경〉 서품의 본문에 부처님이 〈무량의경〉을 설하고 나서 무량의처삼매(無量義處三昧)에 들었다 하고 또 〈화엄경〉을 해인삼매에서 설했다는 것처럼 〈법화경〉을 무량의처삼매에서 설했다고 한다. 경의 이름과 삼매의 이름에 쓰인 무량의란 말은 '한량없다' 라는 말인데 〈무량의경〉에서 설명하기를 "성품이 무량하므로 설법이 무량하고 설법이 무량하므로 뜻도 무량하다. 그 무량한 뜻은 하나의 법(一法)에서 생겨나니 그 하나의 법이 무상(無相)이다 라고 하였다." 이 말의 뜻도 결국 일승(一乘)의 의미와 상통한다. 〈법화경〉은 무량한 뜻으로 보살의 가르치는 법이라는 점을 무량이란 말에서 부각시키고 있는 것이다. 〈법화경〉의 마지막 품인 '보현보살권발품' 은 〈보현행법경〉과 그 궤를 같이 한다. 〈법화경〉을 수지독송, 서사하면 석가모니부처님을 직접 만나 부처님의 입으로 설하는 말씀을 들은 것과 다름이 없다 하여 부처님법이 모두 〈법화경〉에 다 들어 있다는 것을 거듭 강조한다.

〈반야불교연구원장〉

계율은 주목해야 할 '표지판'



임상희의 계율이야기

㊼ 계율의 가치

흰 눈으로 뒤덮인 겨울 산을 오르노라면 눈 앞에 펼쳐진 설경에 연신 감탄이 터져 나오곤 한다. 그러면서도 한 발자국씩 옮기는 발걸음은 무척 조심스러운데, 행여 눈길에 미끄러질까 염려해서이다. 이따금 입산통제구역을 알리는 표지판이 나오기도 하는데, 어떤 이는 무시하면서 계속 오를 것이고, 어떤 이는 되돌아갈 것이다. 위험을 알리는 표지판을 보고도 그냥 지나치는 것은 그것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서일 것이다. 만약 사고라도 난다면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위험해질 수 있다는 것을 망각한 행동이다.

불교도에게 있어서 계율은 잘못된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리는 표지판과 같을 역할을 하기도 한다. 실제로 부처님 당시에 율(律)은 특정한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제정되었는데, 이를 수범수제(隨犯隨制)라고 한다. 즉 악행을 저지르는 이가 생길 때마다 그 악행을 금지하는 율 조문(條文)이 생긴 것이다. 승가 공동체의 규모가 커질수록 잘못된 행동을 하는 이들도 늘어났을 것이고, 그에 대한 처벌도 다양해졌을 것이다. 한두 사람의 잘못된 행동을 묵인하게 되면 공동체 전체의 질서가 유지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율장(律藏)은 일종의 판례집과 같은 성격을 띠기도 하지만, 본래의 목적은 바람직한 승가 공동체를 유지하는 데 있다.

재가자는 출가자와 달리 율의 적용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계를 어겼다고 하더라도 별다른 처벌을 받지 않았다. 대신에 재가자에게는 계를 어겼을 때 받게 되는 다양한 과보(果報)들이 설해지게 된다. 다시 말해 재가자에게 있어 계를 지키는 것은 개인적으로 선한 행위, 또는 도덕적 행위를 습관화하는 것으로 한정된다. 대승불교에서 설해지는 대승계, 즉 보살계에서도 보살이 자발적으로 계를 지키는 것을 강조하는 데 치중한다. 이로 인해 대승 경전에서는 보살계를 어겼을 경우, 그에 대한 처벌을 구체적으로 설하지 않는다. 오히려 보살은 어떤 상황에서든 보살계를 적극적으로 실천해야 한다고 역설한다. 그렇다면 계를 지키는 것은 개인적인 차원에서만 장려되는 것인가?

산속의 표지판은 많은 이들의 안전을 위해 세워진 것이어서 한 사람이라도 그냥 지나쳐서는 안 된다. 다시 말해 모든 사람이 표지판을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하는데, 한두 사람의 부주의한 행동이 많은 이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불자에게 계율은 모두가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표지판이라고 할 수 있다. 만약 누군가가 표지판을 못 본 체한다면 그래서는 안 된다고 말할 수 있어야 하며, 그런 말을 듣게 된다면 이를 겸허히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 나아가 많은 이들의 안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표지판을 알려야 한다.

모든 불자가 계율을 잘 지키게 하기 위해서는 내인(內因)과 외연(外緣)이 갖추어져야 한다. 가령 나무가 불에 잘 타는 성질을 가졌다고 하더라도 누군가 불을 붙여주지 않으면 타지 않는 것과 같다. 대승 경론에서는 모든 중생에게 진여(眞如)라는 내훈(內熏)의 에너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밖으로 불보살과 선지식의 가르침을 듣는 외연이 없으면 발심하여 수행하려는 마음이 생겨나지 않을 것이라고 설한다. 마찬가지로 계율을 지키려는 마음, 즉 본래 청정한 성품에 따르려는 마음은 그것을 일깨워주는 가르침이 없으면 결코 실천될 수 없다. 그런데 누군가가 우리에게 외연을 베풀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흘려들었던 것은 아닌지 곰곰이 생각해보아야 할 것이다. 반대로 한해 동안 여러 선지식으로부터 외연의 혜택을 충분히 받았음을 알아차렸다면 많은 이들을 위해 그것을 아낌없이 베풀겠다고 다짐해야 할 것이다. 〈끝〉

〈동국대 불교대학 강사〉



대풍 스님의 진심법문

㉓ 관음신앙에 대한 올바른 이해

중생 행복 위해 오신 관세음보살

불자 여러분! 불교의 궁극적 목표인 성불을 이룰 수 있는 수행법은 그 종류가 많습니다. 여래선, 지관선, 조사선, 간화선, 염불, 주력, 간경 등과 같이 최상승선과 대승선을 비롯한 대승의 다양한 수행법들이 깨달음을 향한 수행자들의 앞길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많은 수행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불하기란 그리 쉽지 않습니다. 그 까닭은 수행법들에 대해 구체적인 원리와 실천 방법들을 올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고 성급하게 수행했기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남이 장에 가니까 나도 따라서 장에 간다' 는 식으로 남이 좋다고 하니 무작정 따라하는 식으로 수행한다면 성불하기 어렵습니다.

불자 여러분! 초기불교시대와 대승불교시대는 수행의 목표와 수행방법 그리고 신행에 있어서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초기불교에서 수행의 궁극적인 목표가 개인적인 해탈이고, 그 수행의 증과(證果)가 아라한과를 증득하는 것이라면, 대승불교에서는 수행의 목표가 성불과 함께 일체중생의 구제를 완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기불교에서는 자력 중심의 수행을 실천하여 아라한과를 증득하고, 대승불교에서는 타력 중심의 신앙과 수행을 중심으로 성불과 함께 중생구제의 대승보살도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에서는 자력신앙과 타력신앙을 병행하여 상구보리하화중생(上求菩提下化衆生)의 대승불교 이념에 맞게 개인적 성불과 함께 일체중생을 구제하는 대승불교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자력과 타력의 신앙을 병행해서 실천함에도 불구하고 불자들은 수행법이 어렵기만 하고 깨달음은 이뤄지지 않아서 할 수 없이 이것저것 주어지는 인연대로 아무 수행법을 선택해서 하는 형편입니다. 이렇게 해서는 성불할 수 없습니다.

불자 여러분! 성불하기 위해서는 먼저 성불과 인과가 맞는 올바른 수행법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리고 난 후 선택한 수행법에 대해서 인과법에 맞는 수행 원리와 기술들을 충분히 배우고 이해한 후 수행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올바른 인과에 따라 성불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대승불교의 수행법들 중에서 개인적 성불과 함께 일체중생의 구제를 함께 완성할 수 있는 대승불교의 대표적 신앙인 관세음보살의 신앙과 수행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불자 여러분! 관세음보살님은 수많은 대보살들 중에서 가장 널리 신앙되고 실천된 대보살입니다. 기원전후 1세기경 남인도지역에서 출현하였던 관세음보살님은 서원과 위신력을 갖추고 일체중생을 구제하시는 대보살들 중에서 가장 으뜸인 대보살입니다. 그러므로 관세음보살님의 가피력과 구제력은 많은 대보살 중에서 당연히 으뜸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관음신앙은 타력 신앙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신앙이 되었던 것이며 오늘날까지도 으뜸인 것입니다.

불자 여러분! 관세음보살님께서 우리 곁에 오신 이유는 대자대비한 중생구제의 서원과 원력 때문입니다. 관세음보살님은 우리 중생들 곁에서 우리와 함께 살면서 모든 부처님을 대신하여 우리 중생들을 교화하고 구제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관세음보살 묘응시현 제중감로〉 '고해자우품 제1' 에서 관세음보살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중생들이 원하는 바에 따라 중생들이 원하는 것을 베풀며, 수많은 고통으로부터 중생들을 건져내어 그들을 극락으로 인도한다. 중생과 함께 부처를 만나보고 중생과 더불어 가르침을 들으니, 중생으로 인해서 중생을 제도하고 중생을 위해 중생을 깨우친다. 극락의 장엄은 본래 중생을 위한 것이며, 보살의 미묘한 실천행 역시 중생을 위한 것이다. 보살의 미묘한 실천행 역시 중생을 위한 것이니, 중생 속에 살며 함께 일하고 제불(諸佛)을 대신해 교화를 베푼다." 관세음보살님은 중생구제를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모든 중생들의 고통을 제거하고 중생들의 소원을 성취시켜 중생의 행복을 이루어주고자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밀양 사천왕사 주지〉

영혼의 세계 빙의

◉ 영가천도는 이렇게 해야 한다! ◉

■ 영가천도를 행하는 사람이 영화 화면 보듯이 훤하게 영가를 볼 수 있어야 한다!
■ 영가의 생각을 환자의 입으로 영가의 이름, 나이, 성별, 빙의, 년수, 살던곳, 가족인지 아닌지를 확인 할 수 있어야 된다.
■ 영가가 몸에 들어온 이유를 말하게 해야 한다.
■ 영가가 병든 상태인지, 다친상태인지등을 확인하여 치료해줄 수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환자의 병이 낫지 않는다(영가의 병이 사람에게 옮겨온 경우.)
■ 영가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갖고 싶은것, 먹고 싶은것을 물어서 원하는 것을 갖고, 먹게 해주어야 떠난다.
■ 예를들면 소주가 먹고 싶은데 맥주를 주면 영가가 토라져서 천도가 되지 않는다. (환자의 입으로 말한다.)
■ 영가가 알아듣기 쉬운말로 설득을 해야 한다. 어려운 경문을 외우면 영가는 알아듣지 못한다. (살아있는 사람도 어렵게 얘기하면 못 알아듣는다.)
■ 환자의 입을 통해 영가가 떠난다고 말하고 빛을 타고가는 것이 환자가 볼 수 있어야 된다. (빛은 영가가 천상으로 가는 길이다.)
■ 조상영만 천도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영가를 확인해보면 조상령 보다도 타 영가가 훨씬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조상영가,전생영가로 인해 잡귀가 들어온다.)
■ **영가 천도제를 하고 나면 곧바로 병이 호전되어야 한다.**
■ '비만'같으면 그 자리에서 살이 빠지는 것이 확인 되어야 하고 육체적인 증상이 곧바로 개선 되어야 한다.
■ 먹는 음식이 절제가 되지않고 살이 찌시는 분.

불임, 자연유산, 우울증, 심장발작, 조울증, 강박증세, 신들림, 불면증, 악몽, 가위눌림, 현대의학으로 진단이 안나는 병, 몸에서 기운이 빠져나가는 병, 근육이 풀어지며 통증으로 고통 받는 분, 몸이 굳어지며 감각이 없는 분, 병원 등을 수 군데 찾아다니고도 못고친 병으로 고생하는 분.

❖ 스님(수행하시는 모든분)오래된 고질병으로 고생하시는분. ❖ ❖ 영가를 확인하면 어마어마한 사실을 알게된다. ❖

풍수에 관한 모든 것 상담 가능 천광수련원 TEL 043) 905-8275 (충북 보은군 내북면 봉황리 223번지)